



사진2-18 : 옥룡면 산남리 남정 유물 산포지II



사진2-19 : 진상면 섬거리 새뜸 유물산포지

〈표2-8〉 광양의 삼한시대 유물·유적 (2002. 12. 31현재)				
연번	유적명	소재지	유물·유적	비고
1	光陽 太仁洞 도촌遺物 散布地	광양시 태인동 도촌	연질, 경질토기편	
2	光陽 紗谷里 억만遺物 散布地	광양시 광양읍 사곡리 억만	외면에 시문된 발형 또는 삼발형토기편	
3	光陽 龍江里 와룡遺物 散布地	광양시 광양읍 용강리 와룡	승석문, 파상문이 시문된 경질토기류	
4	光陽 仁西里 遺物散布地	광양시 광양읍 인서리	경질토기편 (삼한·백제)	
5	光陽 石社里 옥헌遺物 散布地	광양시 봉강면 석사리 옥헌	적갈색 연질토기(삼한), 회청색 경질토기(백제) 청자편(고려)	
6	光陽 石社里 옥헌 貝塚	광양시 봉강면 석사리 옥헌	패총(삼한), 적갈색토기(삼한)	정밀지표 조사가 필요함
7	光陽 新錦里 遺物 散布地	광양시 옥곡면 신금리	경질토기편	
8	光陽 山南里 남정遺物 散布地II	광양시 옥룡면 산남리 남정	경질토기편	
9	光陽 蟾居里 새뜸遺物 散布地	광양시 진상면 섬거리 새뜸	적갈색 연질토기(대부분) 회청색 경질토기(일부)	
10	光陽 靑岩里 도원遺物 散布地	광양시 진상면 청암리 도원	적갈색 연질토기	생활유적으로 판단됨

제3절 백제시대

1. 시대개관¹¹⁾

「삼국사기(三國史記)」에 의하면 백제는 서기전 18년에 건국되어 서기

11) 盧重國 「삼국의 정치와 사회(개요)」, 한국사⑥국사편찬위원회 1995. 이 글(시대개관)은 위책자에 크게 의존하여 집필되었음을 밝혀둔다.



사진2-20 : 삼국정립기

660년에 나당연합군에 의해 멸망한 것으로 되어있다. 678년간 존속한 백제의 역사는, 시조 온조왕에서 사반왕까지는 소국적 질서가 남아있는 소국(小國)-소국연맹(小國聯盟) 시기이고, 고이왕에서 계왕까지는 소국연맹에서 중앙집권체제에 이르는 과도기인 5부(部)체제 시기이며, 근초고왕 이후는 중앙집권적 국가체제 시기로, 그리고 이후의 한성시대 전기(근초고왕~아신왕), 한성시대 후기(전지왕~개로왕), 웅진시대(문주왕~무령왕), 사비시대(성왕~의자왕)로 각각 나누어 볼 수 있다.

소국-소국연맹단계는 족제적(族制的) 성격이 강한 국읍(國邑)-읍락(邑落) 체제가 유지되었으나, 중앙 집권화가 이루어지면서 종래의 국읍-읍락을 재편한 성(城;村)이 사회편제의 단위가 되었다. 그리고 농업생산력의 증대에 따라 자연

촌이 성장하면서 사비시대에는 자연촌이 사회편제의 단위가 되었다.

백제를 구성한 주민들의 계통은 여러 갈래이다. 이 가운데 선주토착민은 마한의 여러 소국들을 구성하였던 한인(韓人)이 주류를 이루었고 여기에 예인(濊人)들이 섞이게 되었다. 이 한인·예인들은 주로 백제 피지배층을 형성하였을 것이다.

백제의 지배층을 구성하는 세력들의 계통은 왕족과 해씨(解氏) 등을 비롯하여 부여족 계통이 중심을 이루었으며, 4세기 이후 삼국간의 접촉과 중국 및 왜와의 접촉이 본격화 되면서 신라인·고구려인·왜인·중국계통의 사람들도 지배세력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백제는 세 차례를 천도하면서 개성있는 문화를 형성하였다. 한성시대에는 석촌동(石村洞)에 있는 대규모의 적석총(積石塚)에서 보듯이 고구려적인 성격을 강하게 띠었다. 그러나 웅진, 사비로 천도하면서 중국의 남조문화를 받아들여 세련되고 우아한 문화를 만들어 내었다.

또한 백제는 지리적 이점을 최대로 활용하여 중국으로부터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여 이를 백제화 하고, 다시 왜에 전수하여 일본문화를 발전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2. 백제영역으로서의 광양

백제는 근초고왕 24년(369)과 25년(370)에 걸쳐 낙동강 하류의 가야제국과 전남지방을 세력권내에 편입시키는데 성공하였다. 이리하여 마한의 전영역이 백제에 속하게 되었으며, 동시에 삼한은 모두 소멸하고 한반도 북부의 고구려와 중부·남부에는 백제·신라·가야가 자리잡게 되었으며, 광양과 인접한 마한(혹은 변한)때의 소국인 부사분사국(不斯濱邪國: 順天市 樂安), 원지국(爰池國: 全南麗水)도 이 시기에 소멸되었다.

백제는 개로왕대에 이르러 고구려에게 한강유역을 빼앗기는 한편 수도를 웅진(熊津)으로 옮기게 된다. 그 이후 국내 정국의 불안정이 계속됨에 따라 종래 백제의 세력권내에 있던 가야가 백제 대신에 신라에 호의를 표시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다가 신라 법흥왕 19년(532)에 이르러 금관국왕(金官國王)이 신라에 항복하기에 이른다. 이렇게 가야의 지역은 점점 신라로 흡수되기 시작하였으며, 신라 진흥왕 23년(562년)에는 가야사 후기에 있어 중심세력이었던 대가야(大伽耶: 고령)도 신라의 영토가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신라의 가야정복에도 불구하고 그와 인접하였던 광양지역은 백제가 멸망하는 의자왕 20년(660)까지 백제에 속하였다.

한편 「일본서기(日本書紀)」에 있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주목된다. 「繼體王 7년(A·D 513, 武寧王 13년)…百濟가 倭에게 奏하기를 伴跋國(三國史記의 本彼, 곧 星州를 말함)이 百濟領인 己汶을 略奪하였으니 본래대로 百濟의 소속으로 請하였으므로 倭가 己汶, 帶沙를 百濟에게 賜하고 그 뒤에도 伴跋國이 己汶을 얻기를 구하였으나 倭가 끝내 듣지 않았다.」

종래의 견해에 따르면 기문(己汶)은 남원·곡성방면으로, 대사(帶沙)는 ‘多沙’와 음이 비슷함을 착안하여 하동일대로 비정하고 있다. 만약 일단 위의 기록과 비정(比定)을 믿는다면 백제가 약체였던 A·D 5C말경에 전남의 동부일대(광양포함)가 성산가야(星山伽倻)에게 일시 소속되었음을 알 수 있겠다. 그러다가 다시 백제가 세력을 회복하였던 무령왕대에 이르러 회복한 것으로 되어있다.

그러나 역사가 천관우(千寬于)씨는 ‘己汶’과 ‘帶沙’를 낙동강 상·중류



사진2-21 : 삼국성립기의 백제

방면에서 찾아 ‘己汶’을 甘文 즉 금릉군 개령으로, 대사(帶沙)는 성산·경산에서 가까운 지역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천관우씨는 이 사실이 A·D 512~513년에 있었던 백제의 낙동강 상·중류 점령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¹²⁾

광양은 백제시대에는 마노현(馬老縣)으로 불리워졌다. 백제의 지방행정 구획은 한성(漢城)을 도읍으로 했던 시기에는 군·현을 중심으로 편제되었다고 생각되며, 웅진시대(熊津時代)에는 22담로제(擔魯制)가 채택되었다. 5부5方제도는 성왕대인 사비시대(泗?時代)가 되어서야 나타났으며 이 제도가 완전한 행정구역으로 확립된 것은 의자왕대로 여겨지고 있다.¹³⁾

백제시대의 지방통치조직으로 유명한 22담로제도(擔魯制度)의 정확한 내용은 아직 알 수 없으나, 양서(梁書) 백제전에 처음 이 사실이 기재되어 있음으로 보아 웅진(熊津)천도후에 국가체제의 정비과정에서 지방통치를 강화하는 조치로서 확립된 것 같다. 그리고 왕족을 중심으로 한 세력이 담로(擔魯)의 장관(長官)으로 임명되어 지방을 지배하였다.¹⁴⁾

한편 사비시대(泗比時代)로 넘어오면 지방이 「五方」으로 구획되었다. 백제의 「五方」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연구가 있어 대체적인 내용을 알 수 있으므로 여기에 소개한다. 지방은 수도가 5부(部)로 나누어진 것처럼 東西南北中의 5방(方)으로 나누어 졌다. 큰 方은 10개 군(郡), 작은 方은 6~7개 군(郡)을 관할하였는데, 각방에는 방령(方令)1인이 두어졌으며 달솔(達率)이 임명되었다. 각 방령(方令)은 주요 성(城)에 주재하여 700인에서 1,200인 정도의 군대를 통솔하였다.¹⁵⁾ 그리고 군(郡)에는 군장(郡將) 3인을 두었으며 그들은 덕솔(德率)로서 임명되었다.

오방(五方)은 각각 중심이 되는 취락으로서 방성(方城)을 갖고 있었는데, 중방(中方)은 고사성(古沙城 : 전북 고부), 동방(東方)은 득안성(得安城:충남 은진), 서방(西方)은¹⁶⁾ 은 도선성(刀先城 : 예산 대흥), 남방(南方)은 구지하성(久知下城 : 전남구례), 북방(北方)은¹⁷⁾ 웅진성(熊津城:충남공주)이었다.

光陽은 남방(南方)에 속하였으며 남방의 여러군 중에서도 혈평군(歇平郡 : 경덕왕때 昇平郡으로 개명, 지금은 순천시)에 소속되어 마로현(馬老縣)으로 불리었다. 혈평군에는 원촌현(猿村縣 : 경덕왕때 海邑縣으로 개명, 지금의 여수시)과 돌산현(突山縣 : 경덕왕때 盧山縣으로 개명, 지금의 여수시 돌산면)등의 속현이 있었다.

12) 千寬宇, “復元 伽耶史.” 下 「文學과 至性」, (1978, 봄), pp112~115

13) 今西龍, “百濟五方五部考” 「百濟史研究」(東京 : 國書刊行會, 1970)

14) 盧泰敦, “古代國家의 成立과 發展” 「한국사」2, 고대(국사편찬위원회, 1981) pp179~180

15) 盧泰敦, 上揭書, p.222

16) 李基白, 李基東, 前揭書, pp.236. 한편 千寬宇씨는 金堤金構로 比定하고 있다. (“馬韓 諸國의 位置試論” 「東洋學」9, 1979, pp.13)

17) 千寬宇, “馬韓諸國의 位置試論”. pp.14

백제는 의자왕 20년(660) 라·당연합군에게 사비성을 함락당하여 멸망하는데 그렇다고 백제 옛 영토 전역이 모두 항복하여 라·당의 지배하에 들어간 것은 아니었다. 백제의 많은 성들은 여전히 당과 신라의 군대에 항전하고 있었다.

흑치상지가 임존성(任存城:大興)에서 당군과 대항하였으며, 무왕의 종자(從子)인 복신과 승려 도침은 주류성에 근거를 두고 일본에 가있던 왕자 풍을 왕으로 삼아(A·D 661) 기세를 떨쳤으나 내분으로 인하여 자체 붕괴되었다. 당의 유인괴는 무문왕과 함께 주류성을 공격하는데 유인괴의 수군은 육군과 합세하여 주류성을 진격하다가 금강입구에서 백제를 구원하러 온 왜군과 부딪혀 왜선 4백여 척을 불태웠다고 한다.(663년)¹⁸⁾ 이때 패배한 왜병과 백제의 유민이 광양과 하동 접경의 섬진강구를 통하여 일본으로 갔다고 전하여 진다. 이렇게 볼 때 광양지역도 아마 이 시기에 라·당의 지배하에 들어갔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삼국사기」 6권 문무왕 8년(668)조에 그해 봄에 「아마(阿麻)」가 항복하였다는 기록이 보인다. 역사가 이병도씨는 「동국여지승람」의 순천 산천조에 「아마도재 금오도서, 주백리(阿麻島在金龜島西, 周百里)」라고 한데 근거하여 「아마(阿麻)」를 여수남쪽에 있는 금오도 부근의 섬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로 볼때 광양지역의 정복이 663년 보다 더 뒤에 완수되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된다.



사진2-22 : 나당연합군의 백제 공격도

18) 林炳泰, “新羅의 三國統一” 「한국사」2, 고대(국사편찬위원회, 1981) PP.518

3. 광양의 삼국시대(백제) 유물·유적



사진2-23 : 골약동 평촌 유물산포지 1



사진2-24 : 봉암산성

19) 『文化遺蹟分布地圖』順天大學校博物館 2000년 p.208

광양지역에서 현재(2002. 12. 31)조사된 삼국시대(백제)시대의 유물·유적으로는 광양 골약동 유물산포지 등 12개소에 산포되어 있으며 개소별로 유물·유적을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¹⁹⁾

〈표2-9〉		광양의 삼국시대(백제)유물·유적		(2002. 12. 31현재)
연번	유적명	소재지	유물·유적	비고
1	光陽骨若洞通仕遺物散布地	광양시 골약동 통사마을 244	회청색 경질토기편, 청자편, 백자편	
2	光陽骨若洞坪村遺物散布地Ⅰ	광양시 골약동 평촌	토기편 (삼국시대 주거지나 분묘유적으로 추정)	
3	光陽骨若洞坪村遺物散布地Ⅱ	광양시 골약동 평촌	경질토기편	
4	光陽骨若洞坪村遺物散布地Ⅲ	광양시 골약동 평촌	경질토기편	
5	光陽骨若洞下浦竈址	광양시 골약동 하포	회청색 경질토기 도기	삼국~고려시대
6	光陽太仁洞牆內遺物散布地	광양시 태인동 장내	패각 연질·경질토기편	
7	馬老山城	광양시 광양읍 용강리 78외	백제~통일신라시대 기와 「馬老官」 「軍易官」명이 새긴 기와 철제마, 토제마(제사유구)등	백제시대 산성
8	光陽龍江里臥龍古墳群	광양시 광양읍 용강리 외룡	고분 석실분·석관분(밀집지역)	
9	光陽石社里玉峴竈址	광양시 봉강면 석사리 옥현	요지 토기편(회청색 경질토기편, 회질 연질토기편)	
10	光陽山南里山本遺物散布地Ⅱ	광양시 옥룡면 산남리 산본	경질토기편	
11	佛岩山城	광양시 진상면 비평리 산38외	기와류, 토기류, 석환(石丸)	백제시대 산성
12	峰岩山城	광양시 진월면 신아리 아등	석재, 석	백제시대 산성

제4절 통일신라시대

1. 시대개관²⁰⁾

통일신라는 한국 고대사에 있어서 정치적 안정과 문화적 번영을 이룩한 시기이다. 비록 국토와 인구는 크게 감소되었으나, 영토적 야욕을 지닌 당의 세력을 한반도 밖으로 축출시켜 민족의 자결권을 확보하고, 백제·고구려 문화의 폭 넓은 수용과 성당문화(盛唐文化)까지 포용하여 새로운 문화를 발전시킨 것은 통일신라의 역사적 위상을 높여 줄 수 있다.

특히 이 시기는 새로운 통일국가 수립과 외세 축출이라는 민족적 과제 수

20) 申澧植「통일신라(개요)」한 국사⑨ 국사편찬위원회, 이 글(시대개관)은 위 책자에 크게 의존하여 집필되었음을 밝혀둔다.